

衣食住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과 역사 전통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Historical Reviews on Traditional Symbolism of Ginseng in Everyday Life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Ginseng, a Korean native herb, has been a symbol of mystic cure-all which provides longevity benefits throughout Korean history. According to Chinese historical records, a major source of wild ginseng has been described as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most suitable ginseng production area, and the Manchu region near Mt. Baekdu and the Maritime Province. Since Tang dynasty period (618-917 CE), Chinese has also called ginseng as "Goryeo Ginseng", which is named after "Goguryeo" (37 BCE-668 CE), an ancient kingdom of Korea, from which they mainly imported the herb as the region was famous for its high quality of ginseng. To date, it refers to Korean ginseng.

This study compares the medicinal properties of ginseng as stated in the ancient Korean medical books with the major Korean historical records regarding the usage of ginseng and its symbolism of longevity in everyday life. By contrasting these findings, we tried to figure out how the actual medicinal properties of ginseng and the anticipation of longevity are rela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ctations about longevity were widely applied to everyday life.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various usage of ginseng as a motive for decorative patterns and as an ingredient for daily products including snacks, health drinks, various types of food, clothing patterns, and so on. Finally, the usage of ginseng ingredients in the cosmetic products fulfilled the desire of Korean people to purchase, showing the aesthetic recognition and medicinal understandings about the herb.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inseng is an important medicinal agent that not only symbolizes longevity and good health but als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ives of Koreans.

Key words : Ginseng, Korean medicine, symbol, medical history, longevity

I. 서론

인삼은 다년생 초본(草本)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에서 높은 열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을 자생한다고 알려져 신비의 영약(靈藥), 신초(神草)로 믿어져 왔다. 원래 깊은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요즘에는 주로 재배품에 의존하고 있다. 꽃은 연한 녹색으로 4월에 피며, 열매는 둥글고 적색으로 익기 때문에 빨간 구슬 모양의 종자가 여러 개 달린 인삼의 모습은 한민족의 정서에 신비한 약초의 상징적인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

고대 약물을 기록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이미

삼[蔘]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삼산지로서 가장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한반도와 백두산 인근의 만주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이 자연산 산삼의 주 산출지로 알려져 왔다. 당나라 시대, 주로 고구려와의 무역을 통해 인삼을 얻었던 중국에서는 예부터 고구려를 의미하는 고려를 이름 앞에 붙여 '고려인삼(高麗人蔘)'이라고 불려왔으며, 오늘날에도 한국산 인삼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의약학적으로 인삼의 효용성과 약효를 규명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국 인삼의 기원이나 역사성을 고찰하였고, 문화사적인 시각에서는 의약기에 나타난 문양 속에서 미적 감각의 한 패턴으로서 접근하였을 뿐이며, 하지만 인삼을 독자적인 고유 문양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인삼의 실제

접수 • 2016년 11월 15일 수정 • 2016년 11월 30일 채택 • 2016년 11월 30일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약효와 역사전통이 결합되어 형성된 한국인의 건강장수에 대한 믿음과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인삼의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화사적, 미적 가치 이상으로 다분히 광범위한 민족적인 신념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만병통치약이자 건강장수식품으로 여겨온 인삼에 대해 실제 한의약서 특히 본초서(本草書)에 기재된 한의학적 효능과 역대 주요 의학전서(醫學全書)에 기록된 효능을 찾아 대조해 보고 아울러 주요 역사기록과 대비해 봄으로써 인삼이 가진 실제 약효와 당대인들의 건강장수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사용된 다양한 인삼문양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인삼의 약효가 갖는 불가의성과 건강장수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상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실물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 인삼이 함유된 약이나 제제, 그리고 건강음료 및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과 갖가지 과자, 식품 등에 적용된 인삼사용례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건강장수를 염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인삼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인삼성분을 활용하여 제조된 갖가지 미용용품들의 실례를 통해 한방화장품에서도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인삼과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미의식과 그리고 전통양생에 쓰인 인삼을 효용을 살펴보았다.¹⁾

II. 인삼의 한의학적 효능과 역사성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언제부터 인삼이 자랐으며, 한민족이 언제부터 인삼을 애용해 왔는지 그 시원을 추찰하기에는 역사기록에 한계가 많다. 하지만 대략 사료(史料)에 의하면 삼국시대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사로, 고구려와 백제는 늦어도 6세기 전후, 신라는 그 보다 1세기 정도 늦은 7세기 초반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1000년 묵은 인삼이 발견되었다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나무로 제작된 불상 안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발견된 이 인삼은 추정연대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인삼 실체는 조선시대 연산군 때인 1502년에 만들어진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안에

서 발견된 것이다. 사찰에서 불상을 조성할 때, 부처의 뱃속에 여러 가지 유물을 함께 넣어 봉안하는데, 이것을 복장유물이라고 한다. 대개 오곡(五穀)과 불경, 사리와 함께 인삼, 감초(甘草), 계심(桂心), 침향(沈香), 부자(附子) 같은 여러 가지 약재를 넣는다는 것이 불상을 짓는 『조상경(造像經)』에 규정되어 있다.

이 인삼이 유물은 각각 한지로 포장된 복장유물 가운데 발견되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탈수되어 바짝 오그라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삼덩이를 대상으로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1060±80년경으로 나타났다. 1000년 세월을 훼손 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한지로 포장하여 밀봉한 것이 비법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삼은 일본 나라에 있는 일본왕실의 보물창고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된 신라시대 삼으로 역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온 고려삼이다. 그간 국내에는 이렇게 오래된 실물이 전하지 않아 아쉬운 심정이 많았으나 이 불상에서 발견된 인삼 덕분에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²⁾

우리 의약서에 보이는 인삼에 대한 기록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의서이자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처음 간행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나타나 있다.³⁾ 이 책의 방중향약목(方中鄕藥目)에 인삼이 170여 종의 자국산 약재인 향약(鄕藥)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다. 특별히 조선의 문헌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문헌과 달리 인삼의 삼자에 초두(艸)를 붙인 ‘蓼’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삼의 우리말 명칭은 ‘삼’이지만, 그 어원은 알 수 없으며, 다만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이나 『제중신편(濟衆新編)』·『방약합편(方藥合編)』 약성가(藥性歌)에 인삼의 향명(鄕名)이 한글로 ‘삼’이라고 적혀 있다. 오늘날에는 삼마니의 은어로 사용되어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앞서 말한 가장 오래 된 본초서(本草書)인 『신농본초경』에는 365종의 약물을 상중하의 3품으로 분류하여, 구별하였는데, 여기서 인삼은 상품약에 들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인삼의 약효에 대해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기재하여, 현대적인 실험연구로 밝혀진 인삼의

1) 본고는 풍기인삼박물관 편, 인삼특별전 전시도록 해제용으로 작성된 원고의 개정교임을 밝힙니다.

2) 안상우, 「천년 묵은 인삼의 비밀」,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04,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3) 대략 1236~1251년간.

효능과도 일치된다.

후한(後漢) 시대의 저자인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에도 인삼을 이용한 처방이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방약합편』에 수록된 원방 476종 가운데 132종 처방에 인삼이 배합되어 있어 그 폭 넓은 활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삼의 효능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에 기사회생의 명약으로 믿어졌으며, 여러 가지 전설 속에서 장생불사의 불로초로 등장하였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동의보감』에 기록한 인삼의 효능과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인삼의 성미와 효능, 주치증 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주로 오장의 기가 부족한 데 쓴다.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심을 통하게 하여 지력을 더하고 허손을 치료하며, 꺾관으로 구토하고 딸꾹질하는 것을 멎게 하고 폐위(肺痿)증으로 농혈(膿血)을 토하는 것을 치료하며, 담을 삭인다.”⁴⁾

현전하는 의약문헌 가운데 인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신농본초경』으로 후대 도홍경(陶弘景)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흠어진 원문을 수습하여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注)』로 엮어졌으며, 365종의 약초를 상중하 3품으로 나누어 기미, 약효, 이명, 산지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⁵⁾ 『신농본초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학서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 기록한 인삼의 효능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신농본초경』에 기반한 것이다.

“인삼의 맛은 달고 (약성은) 약간 차가우며, 주로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 놀래 가슴이 뛰는 것을 그치게 하며, 사기를 없애고 눈을 밝게 하고 심규를 통하게 열어주며, 지력을 더해주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오래 살 수 있다. ……”⁶⁾

의약서나 본초서 이외에도 고려인삼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들 수 있다. 고려를 방문하였던 송나라 사람 서궁(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이란 책에는 고려의 토속을 소개하면서 인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고려의 인삼 산지와 관련하여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곳곳에 있다(在在有之)”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 한반도 어디서나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보감』 이후 인삼에 대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약성에 대한 기록으로 시골 선비 李景華가 지은 『광제비급(廣濟秘笈)』(1790년경)이 있다. 이 책을 펴낸 이병모(李秉模, 1742~1806)는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심해지면서 지역민들이 의약을 몰라 비명에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을 한탄하여 민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급법과 간이치료법을 적어 널리 보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책의 「향약단방치험(鄉藥單方治驗)」에 등장하는 약물은 모두 향토산 약재이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손쉽게 거두어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제비급』 범례에 나오는 “궁벽한 인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를 가려 뽑아 한글로 이름을 달고 주치·복용법을 갖추어 촌부라도 급한 병에 찾아 쓸 수 있게 하였다”라는 말처럼 결국 저자가 몸소 경험한 향약치료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향약치료경험의 첫 번째 항목이 인삼[人蔘 심] 치험이라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삼은 고가의 귀한 약재임이 분명한데 함경도나 평안도 두메산골 시골사람이 어떻게 쉽게 구하여 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⁷⁾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인삼의 재배시기에 맞물려 있다. 당시 함경도 지역은 평안도, 강원도와 함께 인삼의 주요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1800년에 편찬한 『삼서(蔘書)』를 보면 가삼(稼蔘) 재배법을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인삼 재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늦어도 18세기 초중반에는 개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18세기 후반에 지어진 농서(農書)에 그 재배법이 수록된 것으로 보

4) “性微溫[一云溫],味甘[一云味苦],無毒.主五藏氣不足.安精神,定魂魄,明目,開心益智,療虛損,止霍亂嘔噦,治肺痿吐膿,消痰.”(『동의보감』 탕액편)
5)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6세기 초에 교정(校訂)하여 『신농본초경』본문을 3권으로 하고, 다시 주석을 덧붙여 『신농본초경집주』 7권을 저술하였다. 후세의 본초서는 모두 이것을 조술(祖述)한 것으로서, 송대(宋代)에 나온 『증류본초(證類本草)』는 가장 절정을 이루는 본초서이며, 조선시대에도 주로 이 책을 참조하였다.
6) “[人蔘]味甘微寒,主補五藏,安精神,定魂魄,止驚悸,除邪氣,明目,開心,益智,久服輕身延年,…….生山谷.”(『신농본초경』 권1)
7) 안상우. 「한글대역 鄉藥治驗錄-『廣濟秘笈 鄉藥五十種治法』. 고의서산책 484회. 민족의학신문. 2011.4.14.일자. 참조.

아,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미 가삼 재배법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조·정조 시대에는 인삼 재배가 널리 성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제비급』이 간행된 1790년경에 가삼이 널리 생산되었기 때문에 지방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인삼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⁸⁾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앞서 발굴성과로 소개한 인삼이 건조된 홍삼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우리 문헌상에 최초로 ‘홍삼’이란 용어를 기록한 문헌으로는 『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다고 한다. 또 그간 인삼의 재배는 높게 잡아야 숙중 무렵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1123년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이 남긴 기행문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약칭 『고려도경』)에 이미 ‘고려에는 생삼과 숙삼(熟蔘, 익힌 삼)이 있다’고 적혀 있으며, 이 기록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홍삼이 제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의약서에서 나타나는 기록으로는 1749년 조정준(趙廷俊)이 지은 『급유방(及幼方)』·본초발명(本草發明)의 인삼조에 숙삼의 약성을 논하고 있어 전통 한의약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또한 비슷한 시기 정조대 수의를 지낸 강명길의 의약서 『제중신편(濟衆新編)』이 있다. 이 책은 잘 알다시피 정조가 세자로 지내면서 할아버지인 영조임금을 시봉하면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체득하고 경험한 의약지식이 포괄되어 있다. 동궁시절 정조임금은 강명길로부터 『동의보감』을 학습하고 스스로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는 의약서를 집필하였으며, 훗날 등극한 후에 이 책의 전권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강명길에 다시 집필을 명하여 편찬된 것이다.¹⁰⁾ 이 『제중신편』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8권은 본초 약물의 성미와 효능을 가부로 지어 외우기 쉽게 만든 약성 가藥性歌가 들어있다. 여기에도 인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그 기미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삼미감, 대보원기, 생진지갈, 조영양위”¹¹⁾

즉, 인삼의 맛은 달고 원기를 크게 보충해주며, 진액을

생기게 하여 갈증을 멈추게 하고 영위와 기혈을 조절해 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기록이 조선 후기 인삼에 대한 효능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기록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이나 『제중신편』 모두 관찬의약서로 내의원의 최고 의관들이 집필한 것이기에 당대 약물 사용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반드시 참조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의종손익(醫宗損益)』이다.¹²⁾ 이 책은 조선 말기 장안의 명의로 명성을 떨쳤던 의학자 황도연이 남긴 의학서로 그 마지막 권에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라 해서 본초약물편을 정리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인삼이 가장 먼저 다루어져 있다. 이 약성가는 뒷날 그 사자인 황필수에 의해 『방약합편(方藥合編)』에 편입됨으로써 이후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대중의약서로 자리매김 되기에 인삼에 대한 당대 인식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인삼미감보원기, 지갈생진조영위”¹⁴⁾

다만 『방약합편』 약성가는 기본적으로 자구만 압축되었을 뿐 『제중신편』과 내용상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신고 있는 의미 역시 다르지 않다.

인삼의 한의학적 효능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자면, 모든 내부 장기의 부족 증상, 예를 들면 심허로 인한 심계항진, 불면증이나 비허로 인한 설사, 복랭, 폐허로 인한 천식, 호흡곤란, 간허로 인한 경계, 정충, 신허로 인한 골관절질환 등의 증상 및 일체의 쇠약 혹은 심한 토사나 대출혈 후의 원기가 허탈한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보허 구급(補虛救急)의 중요한 약이 된다. 또 모든 기허증으로 인한 심신불안증에 모두 좋은 효능이 있다.¹⁵⁾

인삼은 세종대 이래 조선조 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편찬된 『구급방(救急方)』에서 중한(中寒), 중기(中氣), 토혈, 하혈, 대소변불통, 산통 등의 위중한 증후에 뛰어난 효능의 구급약으로써 지속적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조선 팔도 향촌마다 재배하고 생산했던 인삼은 조선의 대표적인

8) 강윤미, 김운경, 안상우.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나타난 향약활용법에 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14;29(3):1-10. 참조.

9) 안상우. 「천년 인삼의 제조비법」. 『한국인삼』 9. 농촌진흥청. 2016.

10) 현재 이 책은 사본 상태로 그 일부만 전해지며, 정조가 직접 펴낸 자찬해제집 『群書標記』에도 수록되어 있다. 신승운 국역. 『홍제전서』 18. 서울:민족문화추진회. 2000 참조.

11) “人蔘味甘, 大補元氣, 生津止渴, 調榮養衛”

12) 안상우. 「덜고 더한 東醫 宗旨-『醫宗損益』」. 『고의서산책』 63. 민족의학신문. 2001.3.12.일자.

13) 안상우. 「덜고 더한 東醫 宗旨-『醫宗損益』」. 『고의서산책』 63. 민족의학신문. 2001.3.12.일자.

14) “人蔘味甘補元氣, 止渴生津調榮衛”

15) 강윤미 외, 앞의 논문, 2014.

향약(鄉藥)이자 기사회생의 구급약으로 유사 이래 최고의 히트상품이었다.¹⁶⁾

Ⅲ. 의식주에 투영된 인삼문양의 상징성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로서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를 손꼽으며, 이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삶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상 행위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불로초(不老草) 혹은 만병초(萬病草)라고 부르는 인삼을 상징하는 문양이 활용되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일상사가 자연의 규율처럼 언제나 어긋남 없이 영구하게 이어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연계의 불변의 상징들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응용하였다. 예컨대, 궁중(宮中) 전각(殿閣)에 국왕의 보좌에 둘러섰던 십장생도(十長生圖) 병풍은 바로 이러한 상징의 대표적인 예이며, 여기에 인삼이나 영지 모양으로 그려진 불로초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그림 1).

민가의 생활도구류 가운데서 의생활과 관련해서는 각종 의복류에 인삼이나 불로초의 문양을 응용한 각종 도안이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의복을 가리고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헛대보나 의복장에 자수(刺繡)나 장식으로 자주 등장하며, 수건이나 신발, 노리개, 마고자 단추 등에 응용되었다. 특히 의복을 짓고 마름질하는데 관계되는 실패와 반질고리 등에 인삼문양과 목숨 수壽자를 같이 시문(施紋)하는 것은 역시 정성들여 만든 의복을 입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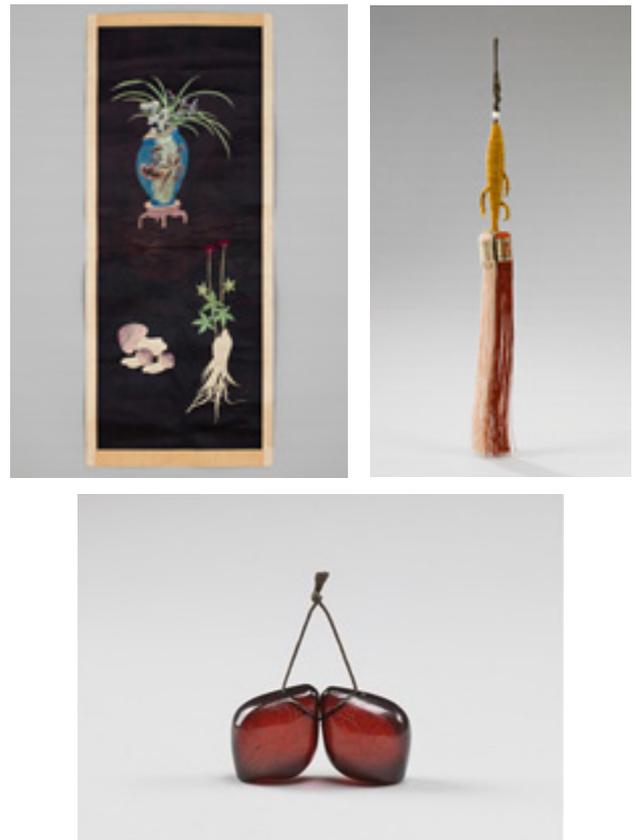


그림 1. 자수병풍, 인삼노리개, 인삼문양 마고자 단추(풍기인삼박물관)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도 실제 인삼을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가 흔하였는데, 여름철 무더위와 서증(暑症)을 예방하기 위한 식음료로 널리 알려진 생맥산(生脈散)¹⁷⁾이나 제호탕(醞酬湯)¹⁸⁾에 인삼이 주재료나 혹은 가미약재로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 말고도 근현대에 이르러 인삼정과나 인삼김치, 인삼튀김, 인삼과자 등이 개발되어 널리 애호를 받고 있다. 또 식생활에 소용되는 자개상이나 약상(藥床), 다과상 등과 각종 그릇이나 떡살, 다식판, 수저, 그리고 밥상보에 인삼문양이 새겨졌다(그림 2).

16) 안상우. 「기사회생하는 향약, 인삼」, 『한국인삼』, 인삼연구자협의회. 2015. 봄.

17) 인삼, 황기, 맥문동, 오미자 등을 주재료로 고안된 여름철 더위 예방약으로 더위로 혼절한 경우에도 기사회생의 구급약으로 사용하였다.

18) 궁중에서 여름철 음료로 쓰인 처방으로 오매, 초과, 사인, 백단향을 주재료로 하고 간혹 인삼을 가미하여 기능성을 더하기도 하였다.



그림 2. 나전칠기 약상에 시문된 인삼 문양(풍기인삼박물관)

주거생활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인삼문양이 시문(施紋)된 화문석(紋席)이나 자수병풍, 동경(銅鏡)을 비롯하여, 달력이나 부채 등 각종 일상도구류에 인삼문양이 시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삼을 비롯한 약재를 보관하거나 탕제를 달이기 위한 용도로 약장(藥櫃)이나 약함(藥槓), 그리고 약상(藥床), 약사발, 약탕기, 약틀¹⁹⁾ 등이 사용되었다.²⁰⁾



그림 3. 화문석 방장에 시문된 인삼문양(풍기인삼박물관)

전통 생활용구에 새겨진 문양(紋樣)은 한 민족 문화의 소산으로서 각 시대 대중들의 생활 풍습이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오랜 역사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 민족의 보편적인 미의식을 축적시킨다.²¹⁾ 뿐만 아니라 문양은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 모양이나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²⁾

한의약기에 나타나는 문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실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며 상징성과 심미성, 자연적 조화로움의 추구, 기록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문(施紋)된 문양은 동물문(動物紋), 식물문(植物紋), 문자문(文字紋) 형태이며 용(龍), 인삼(人蔘), ‘수(壽)’자 등을 새겨 넣었다.²³⁾

전통생활용구나 한의약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양으로서 인삼이 손꼽히는 것은 당연해 보일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서 익숙한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인삼 문양에 대한 전문적인 논고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인삼(人蔘)은 귀한 약초로 불리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약초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라면 ‘온갖 풀 종류의 영장’은 인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기에 인삼 문양을 시문하게 된 것은 건강에 대한 기원과 장수의 매우 당연하고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白磁人蔘紋藥湯罐(조선 19세기, 동서의약 박물관)에는 인삼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인삼은 몸에 補益이 되는 약재이므로 시문한 것이다.”²⁴⁾

같은 시기 유물인 약틀 인삼문약압착기(人蔘紋藥壓搾器)(조선 19세기,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위판에는 人蔘이 새겨져 있으며, 나전인삼갑(螺鈿人蔘匣)(조선 17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인삼 무늬가 나전 기법으로 갑 전체에 새겨져 있다.²⁵⁾

19) 탕약을 달여 배보자기에 싸서 약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기계식 도구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판의 긴 손잡이에 힘을 가해 누르면 홈통 속에 있는 약보자기를 압착해 약즙을 효과적으로 짜내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 보통 약틀이라 부르며, 식구가 많거나 장기간 약을 복용했던 양반가에서 이용되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배보자기에 싸서 나무막대기를 엇갈리게 돌려 약즙을 짜내었다.

20) 의약기에 나타난 인삼 문양에 대해서는 백주현, 안상우, 『한의약기 문양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16(2):33-41. 참고.

21) 정복상, 정이상, 『전통문양의 응용과 전개』, 서울:창지사, 1996:6.

22) 이승해, 『조선시대 묘역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 남양주 조선시대문양학본집, 남양주향토사료관, 2002:163.

23) 백주현, 안상우, 앞의 논문, 2010, p. 33.

24) 백주현, 안상우, 앞의 논문, 2010, p. 38.

25) 이상 의약기 시문사례는 한독의약박물관 도록을 참조하였다.



그림 4. 인삼문약틀, 죽제인삼갑, 나전인삼갑(한독의약사료관)

IV.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인간의 욕망

일본 최고의 권력자였던 막부(幕府)의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는 조선삼을 이식 재배하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었을 정도였다.²⁶⁾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모두 조선인삼을 구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열망했던 나머지 막대한 은화가 조선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를 수행한 의관들은 의례히 인삼과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등속을 여장에 챙겨 넣었으며, 여비를 조달하는 방편이자 공공연한 무역상품으로 행세하였다. 또한 조선통신사 의학문답(醫學問答)류에 보면 조선사절단으로 일본에 간 조선의관 일행들은 인삼재배법을 알아내려는 일본인들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달려야만 했다. 여하간 요시무네는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

에 도쿄 인근 닛코(日光)에 설립한 어종약초밭[어약원(御藥園)]에서 인삼을 재배하는데 성공하지만 품질은 기대 이하였는지 조선산 인삼을 밀무역해가는 것은 여전하였다.²⁷⁾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조선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재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나무로 만든 샷갓에 조선의 복식을 흉내 낸 차림새를 하고 어깨에는 약재와 과자 등속을 넣은 걸망을 메고 다니면서 과는 행상이었다는 설명이다.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조선에서 건너온 귀한 약을 사라고 외치고 다녔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자아내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메고 다녔다는 행낭에는 아마도 고급의 명약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조선인삼과 우황청심원 같은 약재가 들어있었으리라.

그저 과장된 말로만 꾸며진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전통목판화인 우키요에(浮世繪)의 명인이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지목되는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가 남긴 화본 『북재만화(北齋漫畵)』에 ‘코오케이시(弘慶子)’라는 이름의 체목아래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에도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풍물거리로 등장하는 조선약재상의 활약, 그것은 다름 아닌 2백여 년 후에 재연되었던 한류의 선구적 모델이자 열풍의 전주곡이었던 셈이다.²⁸⁾

나아가 조선시대 일본에서는 죽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인삼을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경사(京師)의 좋은 집 3채 값을 웃도는 인삼을 구하여 늙은 어버이에게 마지막 효도를 선사하려는 사람들이 조선사절들의 행로를 가로막았다고 전해질 정도이다.

이밖에도 인삼을 재료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를 만들어 애용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전한다. 당대의 도사(道士)이자 신선(神仙)으로 이름난 여동빈의 고사를 보면 인삼으로 만든 과자가 등장한다.

“예전에, 순양자 여동빈 조사가 시장에 나와 인삼과를 팔러 하였다. 여조사가 말하길, 인삼과가 오로칠상과 여러 가지 허손증을 치료하며, 아울러 능히 외사를 막아주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몸을 가벼이 하고 늙지 않게 하니 참으로 신묘한 약이라 하였다. 그러자 시정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선 구름같이 몰려들어 앞 다투어 약을 사려 하는 자가 1000여명이었다. ……”²⁹⁾

26) 손제하. 『조선이 일본에 건네준 하이테크 이야기』. 서울:일빛. 2005.

27) 안상우. 『우황청심원과 인삼, 전통의약의 가치』.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8) 안상우. 『『동의보감』과 에도시대 한류열풍』.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0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위의 고사에서 우리는 오래 전에 이미 멀리 중국에 이르기까지 고려 인삼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제형으로 가공되어 음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삼의 효과와 기대심리를 담아 각종 기호식품류에도 인삼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였고 용기나 포장, 광고에도 인삼문양을 응용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예컨대, 인삼주(人蔘酒), 인삼정(人蔘精), 인삼차(人蔘茶)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인삼엿, 인삼과자, 캔디, 비스킷, 카라멜, 커피에도 인삼이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심지어는 담배파이프에 인삼을 넣거나 금연초(禁煙草)에 인삼 잎이나 뿌리를 섞어 넣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것은 인삼의 효과를 가지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거나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 얼마나 한국인의 심리 속에 인삼이 만병통치의 상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5, 6).



그림 6. 인삼엿, 인삼과, 인삼과자(풍기인삼박물관)



그림 5. 인삼주, 인삼정, 인삼을 가공한 건강차(풍기인삼박물관)

V. 양생과 미의식 추구

한의학에서 인삼의 효능은 “대보원기(大補元氣), 지갈생진(止渴生津), 조영양위(調榮養衛)”라고 하여 인체의 생명력의 원천인 원기(元氣)를 크게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갈증을 멈추게 하고 진액을 생성시켜 안팎으로 기혈영위를 조절하고 배양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부와 주리가 치밀하고 매끄럽게 되며, 면색(面色)이 화창해 지고 모발을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인들에게 장수보약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경옥고(瓊玉膏)가 아닐까 싶다. 경옥고는 원래 당송시기에 고려에서 입수된 신라삼(羅蔘)을 주재료로 고안된 처방으로 철옹선생신비방(鐵甕先生神仙秘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여 전해졌으며, 생지황과 꿀 등을 주재료로 배합하여 장복할 경우, 안색이 윤택해지고 피부와 살결이 고와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등, 장생불로한다는 신비한 영약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경옥고에 등장하는 신라 인삼에 관한 논거이다.

29) “昔者純陽呂祖師，出賣人參果，一紋一枚，專治五勞七傷，諸虛百損，并能御外邪，消飲食，輕身不老，却病延年。眞神丹妙藥也。市人聞之，環聚爭買者千余人。”(程國彭, 『醫學心悟』, 醫中之誤, 人參果)

경옥고의 가장 주요 약재인 인삼은 『홍씨집험방(洪氏集驗方)』에서 ‘신라인삼(新羅人蔘)’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같은 책의 다른 처방에서는 구태여 신라인삼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은 반면에 경옥고에서만 유독 ‘신라인삼’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 권2 응저편에 화독배농내보산(化毒排膿內補散)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제도 역시 인삼이 주재인데, 그 주석에 “요즘 신라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상품이니, 속이 단단하고 무게가 묵직하며 겉이 매끄럽고 반질거리는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 노두를 잘라내고 얇게 저며 불기로 말린다.”³⁰⁾라고 밝혀져 있어 중요한 약처방에 상품의 신라산 인삼을 구해 처방했음을 알 수 있다. 출전 문헌을 살펴보면 경옥고나 이 처방은 모두 시랑(侍郎)이나 한림학사(翰林學士), 승상(丞相)의 형과 같이 고위직품에 재직하였던 유력자였기에 멀리 조선 땅에서 무역해 온 신라인삼을 처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당대(唐代) 이순(李珣)이 편찬한 『해약본초(海藥本草)』에는 “人參出新羅國所貢”이라 적혀 있어 당대에 이미 신라인삼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옥고 제조시 신라와 대당무역을 통해 입수한 신라삼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송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전승되어 문헌에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³¹⁾

후대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 1281~1358)이라는 의학자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옥고는 단계의 학설을 기본으로 여러 명방을 종합하여 정리한 방광(方廣)의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1536刊)에서 그 효용에 대하여 “1제를 먹을 수 만 있더라도 100여 살을 살 수 있으며 백발이 검게 바뀌고 노인이 동안으로 돌아오니 기막힌 효과를 이루 말할 수 없다.”³²⁾라고 하여 노화가 진행된 피부미용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노화의 대표적 현상으로 손꼽히는 백발이 다시 검어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신비한 미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이미 입증된 인삼의 강장효과와 신비한 영양을 갈구하는 인간의 기대심리에 부응하여 불로장생의 상징으로써 이미지를 더 한층 확고하게 구축해 나갔다.

이외에도 화장이나 미의식에 투영된 인삼의 효과와 더불어

위생관념이 연관된 인간만의 독특한 행위로 우리는 목욕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목욕에 의용제로 사용된 인삼의 사례이다.

“한국인에게 목욕은 주술 수단, 청결 수단, 미용 수단, 치료 수단, 세시풍속 등의 의미에서 활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미용탕(美容湯)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인삼과 인삼 잎을 달여 넣은 인삼탕으로, 이 물에 목욕하면 피부가 매끈하고 윤기가 흘렀다고 한다.”³³⁾

이와 별도로 일반 치병을 위한 복약이 아니면서 미용효과를 노린 기호품 혹은 의약외적인 용도로 인삼을 내복하여 사용한 사례도 있다. 바로 『동의보감』의 양생법만을 간추려 재편한 저자 미상의 필사본 의서로 『섭양요결(攝養要訣)』에 나오는 방법이다.³⁴⁾ 여기서 섭양(攝養)은 곧 양생법(養生法)을 의미하는데, 이 책에는 얼굴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고본주(固本酒)라는 약술이 소개되어 있다.

“과로로 허약해진 것을 치료하며, 수명을 늘려주며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해주고 얼굴을 아름답게 해준다. 생건지황, 숙지황, 천문동, 맥문동을 모두 심을 제거한 것, 백복령 각 2냥, 인삼 1냥을 썰어서 자기 항아리에 좋은 술 10병을 채워 넣고 3일 동안 약재를 담가 두었다가 센 불과 약한 불을 번갈아가며 1~2시간 동안 끓이는데, 술이 검게 변할 때까지 한다. 빈속에 3~5잔을 마신다.”³⁵⁾

여기서 ‘고본(固本)’은 ‘근본을 견고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르면 고본주는 인체의 근본인 원기(元氣), 신기(腎氣), 정기(精氣) 등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인체의 근본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기술은 나아가 인체의 생명력을 증강시켜 수명을 연장해주는 효과뿐 아니라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처방에 포함된 생건지황, 숙지황은 인체의 음기(陰氣)를 자양시켜주는 한약재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데에 생건지황, 숙

30) “今以新羅者爲上, 擇團結重實滋潤者, 洗淨去蘆, 薄切焙乾.”

31) 『證類本草』에도 『藥性論』을 인용하여 “出海東新羅國”이라고 기록하였다. 안상우, 「瓊玉膏의 由來와 臨床應用的 變遷」, 제23회 한국사학회 학술발표회, 2015.

32) “有能服過一料者, 活百餘歲, 白髮變黑, 老返童顏, 妙不可言矣.”(『丹溪心法附餘』 24, 雜治門, 駐容顏)

33) 김남일, 『한방화장품의 문화사』, 파주:들녘, 2013:103.

34)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고의서산책 6. 『섭양요결』, 민족의학신문, 1999.8.2.일자.

35) “治勞補虛, 益壽延年, 烏鬚髮, 美容顏, 生乾地黃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 苡去心 白茯苓 各二兩, 人蔘一兩, 右到, 用磁缸, 盛好酒, 十壺浸藥, 三日, 文武火煮, 一二時, 以酒黑色爲度, 空心服, 三五盃.”(필자 표점)

지향만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 (중략) …… 인삼은 심장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작용으로 혈관 속의 혈액의 원활한 순행을 도와주고, 복령은 수명 연장의 필수불가결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들로 술을 만들었을 때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을 소통시켜주는 술의 작용과 합쳐져 피부의 원만한 혈액 소통과 영양분 공급 작용이 일어나 피부가 아름다워진다.³⁶⁾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생불사의 꿈과 더불어 영원한 젊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러한 인류공통의 소망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내복약이나 혹은 외용 화장품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삼이 화장품의 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각종 용기나 전단, 홍보물에 인삼이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인삼이 갖고 있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상징성과 실제 효과가 결합되어 사용자로부터 기대심리와 구매 욕구를 증진시켜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미의식이 반영된 화장품과 미용제품에 인삼이 반영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대개, 인삼분말이 함유된 파우더나 비누, 면분(面粉), 연지(臘脂) 등과 인삼 성분을 가공한 미백화장품, 크림, 화장수, 스킨로션, 치약이나 치아미백분 등을 들 수 있다. 근래에는 옛센스나 마스크 팩 등에 이용하여 사용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그림 7).



그림 7. 인삼이 백발예방에 좋다는 광고지, 인삼비누(풍기인삼박물관)

VI. 결론

인삼은 한반도의 자생식물로 오랜 세월 신비의 영약(靈

藥), 신초(神草)로 믿어져 왔으며, 한민족의 정서에 장생불노, 연년익수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당나라 시대, 주로 고구려와의 무역을 통해 인삼을 얻었던 중국에서는 예부터 고구려를 의미하는 고려를 이름 앞에 붙여 ‘고려인삼(高麗人蔘)’이라고 불려왔으며, 오늘날에도 한국산 인삼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본초서와 역대 주요 의학전서에 기록된 인삼의 한의학적 효능을 대조해 보고 아울러 주요 역사기록과 대비해 봄으로써 인삼이 가진 실제 약효와 당대인들의 건강장수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사용된 다양한 인삼문양을 통해 인삼의 약효가 갖는 불가의성과 건강장수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인삼이 함유된 약이나 제제, 그리고 건강음료 및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과 갖가지 과자, 식품 등에 적용된 인삼사용례를 통해 건강장수를 염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삼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인삼성분을 활용하여 제조된 갖가지 미용용품들의 실례를 통해 인삼의 사용이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삼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약재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재임을 알 수 있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방유취 전서편찬 기획연구(K16664)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문헌

1. 『傷寒論』.
2. 『神農本草經集註』.
3. 『洪氏集驗方』.

36) 김남일. 『한방화장품의 문화사』. 파주: 들녘, 2013:187-189.

4. 『海藥本草』.
5. 『丹溪心法附餘』.
6. 『洪氏集驗方』.
7. 『宣和奉使高麗圖經』.
8. 『救急方』.
9. 『東醫寶鑑』.
10. 『及幼方』.
11. 『廣濟秘笈』.
12. 『蔘書』.
13. 『壽民妙詮』.
14. 『濟衆新編』.
15. 『醫宗損益』, 『醫宗損益附餘』.
16. 『方藥合編』.
17. 『攝養要訣』.
18. 김남일. 『한방화장품의 문화사』, 파주:들녘, 2013.
19. 손제하. 『조선이 일본에 건네준 하이테크 이야기』. 서울:일빛. 2005.
20. 신승운 국역. 『홍재전서』 18. 서울:민족문화추진회. 2000.
21. 와타나베 소슈, 유덕조 옮김. 『중국고대문양사』. 서울:법인문화사. 2000.
22. 정복상, 정이상. 『전통문양의 응용과 전개』. 서울:창지사. 1996.
23. 강윤미, 김윤경, 안상우.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나타난 향약활용법에 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14; 29(3):1-10.
24. 백주현, 안상우. 「한의약기 문양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문집. 2010;16(2):33-41.
25. 안상우. 「『동의보감』과 에도시대 한류열풍」.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0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6. 안상우. 「우황청심원과 인삼, 전통의약의 가치」.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7. 안상우. 「천년 묵은 인삼의 비밀」. 『e-한의학』. 역사로 풀어보는 한의학 04.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8. 안상우. 「천년 인삼의 제조비법」. 『한국인삼』 9. 농촌진흥청. 2016.
29. 안상우. 「기사회생하는 향약, 인삼」. 『한국인삼』. 인삼연구자협의회. 2015. 봄.
30.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고의서산책 6. 『섭양요결』. 민족의학신문. 1999.8.2.일자.
31. 안상우. 「덜고 더한 東醫 宗旨-『醫宗損益』」. 『고의서산책』 63. 민족의학신문. 2001.3.12.일자.
32. 안상우. 「新增藥性 노래한 損益本草-『損益附餘』」. 고의서산책 196. 민족의학신문. 2004.4.5.일자.
33. 안상우. 「한글대역 鄉藥治驗錄-『廣濟秘笈鄉藥五十種治法』」. 고의서산책 484. 민족의학신문. 2011.4.14.일자.
34. 안상우. 「瓊玉膏의 由來와 臨床應用的 變遷」. 제23회 한국의사학회 학술발표회. 2015.
35. 이승해. 「조선시대 묘역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 남양주 조선시대문양탁본집. 남양주향토사료관. 2002.